코스모스와 황금벼 29일 장성군 삼서면 들녘에서 만개한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하는 가운데 한 농민이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해바라기아동센터 목포에 문 열었다

24시간 통합처리(One-Stop) 방식으로 성범죄 피해 법률상담과 진료 등을 지원하는 여성·아동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었다.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목포 중앙병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성·아동센터'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 기능과 긴급지원, 수사 기능을 통합한 모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소됐다.

센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조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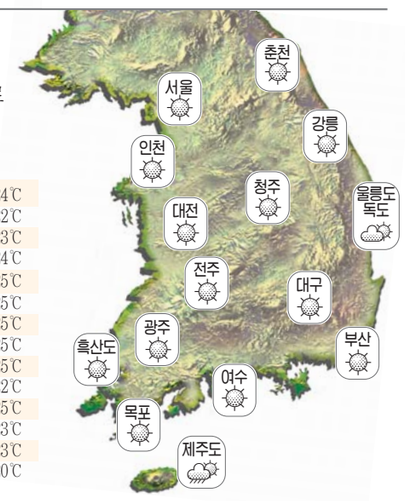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6분 해짐 18시 19분 달뜸 22시 43분 달짐 12시 47분

쌀쌀한 새벽공기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12/24℃
목 포	맑음	13/22℃
여 수	맑음	16/23℃
완 도	맑음	13/24℃
구 례	맑음	9/25℃
해 남	맑음	11/25℃
장 흥	맑음	11/25℃
고 흥	맑음	11/25℃
순 천	맑음	12/25℃
영 광	맑음	10/22℃
진 도	맑음	12/25℃
전 주	맑음	10/23℃
남 원	맑음	7/23℃
흑산도	맑음	16/2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5:53 18:43	11:07 --:--
여수	13:20 --:--	06:24 19: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금)	2(토)	3(일)	4(월)	5(화)	6(수)
날 씨						
최저/최고	14/25	17/23	16/22	12/21	11/23	12/24

광주 뺑소니 검거율 7대 도시중 '꼴찌'

최근 5년간 83.4% 그쳐 … 405건이 '미궁'

최근 5년간 광주 경찰의 뺑소니 교통사고 범인 검거율이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2438건에 달한다.

광주 경찰은 이 가운데 2033건의 뺑소니 가해자를 붙잡아 83.4%의 검거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가운데 405건(16.6%)은 '미궁'에 빠진 셈이다.

또 광주의 뺑소니 가해자 검거율은 서울과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전국 평균 뺑소니 가해자 검거율(83.9%)을 밑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뺑소니 사건 1773건 중 1568건의 가해자를 붙잡아 88.4%의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인천(88.1%), 서울(87.8%), 부산(84.9%), 대구(84.2%)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5년간 발생한 뺑소니 사건 2972건 중 가해자 84.2%(2501건)가 검거됐다. 이는 전국 평균 검거율(83.9%)을 소폭 웃도는 것이지만, 뺑소니 사건 가운데 471건(15.8%)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5년간 뺑소니 사고로 163명이 목숨을 잃고, 85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미해결 뺑소니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경우 5년간 뺑소니 사고가 총 5만872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만9274건의 가해자가 검거됐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뺑소니 사고로 1461명이 사망하고 9만2947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9451건(16.1%)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유정현 의원은 "뺑소니의 경우 귀중한 목숨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범죄"라며 "뺑소니 신고 보상금 확충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내년 12개 학교 개교

과밀학급 해소 기대

내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12곳이 새롭게 문을 연다.

29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등에 5곳, 순천시, 영암군 등 7곳에 학교가 신설된다.

광주의 경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광산구 지역에 신설 학교가 집중돼 이들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들의 통학난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개교 예정인 학교는 첨단지구의 유치원 1곳을 비롯한 초등학교 2곳, 중·고교 각 1곳씩 모두 5곳이다. 초등학교는 첨단과 수완지구에 1곳씩 문을 열고 중학교는 수완지구, 고교는 첨단지구에 개교한다.

전남에서는 아직 교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남과 영광에 각각 해오름유치원·홍농유치원이 문을 열며 초등학교는 목포의 영산초등학교, 여수에서는 웅천초등학교가 개교한다. 중학교는 순천에 운곡중학교, 고등학교는 순천과 영암에 각각 삼동고등학교, 삼호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맞는다.

현재 공정률은 40~50%대로 순조롭게 진행돼 내년 1~2월이면 모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시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개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명과 개교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는 교육청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이 3곳,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립중인 곳은 2곳이며 전남은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광주는 공립 유치원 137개교, 초등학교 147개교, 중학교 86개교, 고등학교 66개교로 늘게되며 학생수는 27만2000여명이다.

전남은 유치원 457개교, 초등학교 435개교, 중학교 248개교, 고등학교 156개교에 학생수는 29만1000여명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플루 또 유행?

여수서 고교생 4명 확진

여수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유행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 지역 모 고교 학생 4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모두 퇴원했으며 이 학교에서는 학생 2명이 추가로 의심증세를 보였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초 유행세가 꺾이고 나서 개별 감염사례는 있었지만, 학교 등에서 여러 명이 감염된 사례가 다시 생긴 것은 처음이라고 보건소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감염학생들은 최근 외국에 다녀오지도 않았으며 지난해 10~11월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번 신종플루가 동절기에 유행하는 다른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유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막연한 공포심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만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